

- **주요 뉴스:** 미국 3월 근원 소비자물가 발표, 전월비 보험 수준 예상 통화정책 영향에 주목
 - JPMorgan의 다이먼 회장, 점진적으로 은행위기 종료에 근접
 - FAO, 3월 세계 식품가격지수, '21년 7월 이후 최저. 12개월 연속 하락
 - 일본 중앙은행, 우에다 신임 총재 취임. 완화적 통화정책 중단 여부에 관심
 - **국제금융시장(주간):** 미국은 경기둔화 가능성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
주가 하락[-0.1%], 달러화 약세[-0.7%], 금리 하락[-16bp]
 - **주가:** 미국 S&P500 지수는 경기 불확실성과 일부 저가매수 유입 등이 반영
 유로 Stoxx600 지수는 기업실적 개선 기대 등으로 0.2%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연이은 노동지표 부진 등이 배경
 유로화 가치는 0.7% 상승, 엔화는 0.8% 절상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큰 폭 하락했으나 3월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 낙폭 축소
 독일은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11bp 하락
- ※ 원/달러 환율(주간) 1.3% 상승, 한국 CDS 상승

주요지표					주요지표				
		4/7일	3/31일	전주말대비			4/7일	3/31일	전주말대비
주가	미국	4,105.0	4,109.3	-0.10%	국채금리 10y	미국	3.31%	3.47%	-16bp
	유럽	458.94	457.84	0.24%		독일	2.18%	2.29%	-11bp
	중국	3,312.6	3,272.9	1.22%		영국	3.43%	3.49%	-6bp
	일본	27,473	28,041	-2.03%	CDS 5y	한국	45bp	44bp	1bp
	한국	2,459.2	2,476.9	-0.71%		중국	74bp	72bp	2bp
환율	달러지수	101.82	102.51	-0.67%	위험지표	EMBI+	428	414	14bp
	유로화	1.0917	1.0839	0.72%		VIX	18.40	18.70	-1.60%
	엔화	131.85	132.86	0.77%		WTI유	80.70	75.67	6.65%
	위안화	6.8730	6.8736	0.01%	원자재	구리	401.6	409.5	-1.93%
	원화	1,319.1	1,301.9	-1.30%		금	2,007.9	1,969.3	1.96%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미국과 유럽 주가 및 원자재 가격은 4/6일 기준.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종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3월 근원 소비자물가 발표, 전월비 보합 수준 예상. 통화정책 영향에 주목

- 4/12일 3월 소비자물가(CPI)가 발표될 예정. 시장에서는 연간 및 월간 상승률이 각각 5.2%, 0.3%를 기록하여 전월(6.0%, 0.4%) 대비 떨어질 것으로 예상. 다만 근원 CPI의 경우 연간 상승률은 전월에 비해 소폭 오르고(5.5%→5.6%), 월간 상승률은 떨어질(0.5%→0.4%) 것으로 추정
- 헤드라인 CPI의 상승세 둔화 예상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대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근원 CPI 상승률이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주의해야 할 사안. 만일 이러한 시장 전망이 정확하다면 연준은 5월에 또 한 번의 금리인상에 나설 것으로 관측
- 3월 CPI 결과는 전반적으로 디스인플레이션 관련 긍정적 기대를 갖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관측. 그러나 최근 OPEC+의 감산 예고 및 이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 증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당분간 디스인플레이션 기대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Bloomberg Economics의 Anna Wong)
- 한편 CME FedWatch Tool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현재 4.75%~5.00%)는 5월에 0.25%p 인상되어 최종금리(5.00%~5.25%)를 형성한 후 7월, 9월, 12월에 각각 0.25%p 인하되어 연말에는 4.25%~4.50% 수준을 기록할 전망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JPMorgan의 다이먼 회장, 점진적으로 은행위기 종료에 근접

-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렸던 은행위기가 점차 해결되는 상황일 수 있다고 발언. 몇몇 은행만이 SVB 사태로 문제를 겪고 있으며, 다음 주 은행들의 실적 발표가 시작되면 전반적으로 양호한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

■ Charles Schwab, 3월 신규 고객자산 큰 폭 증가. 시장 불안 해소 기대

- 3월 신규 고객자산이 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인 530억달러 늘었으며, 최근 예금 흐름이 상당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발표. 시장에서는 경영진이 이번 발표를 통해 자사 관련 불안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평가

■ 스위스 재무장관, UBS의 Credit Suisse 인수 원활하게 진행될 전망

- 카린 켈러-서터 장관은 당국의 최우선 과제가 스위스 경제 및 금융안정을 위한 UBS의 Credit Suisse 인수라고 강조. 일부에서는 정부의 지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정부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규모라고 설명

■ FAO, 3월 세계 식품가격지수, '21년 7월 이후 최저. 12개월 연속 하락

-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3월 식품가격지수는 126.9를 기록하여 전월(129.7) 대비 하락. 12개월 연속 하락이 나타나고 있으나, 설탕과 고기 등 일부 품목은 상승세 지속. 한편 전체적인 식품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식품수입 규모가 큰 국가는 이와 관련된 재정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

■ 러시아, 흑해 곡물협정 탈퇴 가능. 자국산 곡물·비료 수출 장애물 제거될 필요

-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재개를 허용한 흑해 곡물협정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강조. 흑해 곡물협정 체결 당시 러시아산 곡물·비료 수출 장애물이 제거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는데, 서방 국가들의 제재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주장

■ 중국 총리, 수출 안정화 위해 모든 수단 동원할 방침

- 리창 총리는 최근 감소세를 나타내는 대외무역의 확대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 세계 성장둔화가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중요한 우려 사항이라고 지적. 아울러 무역 안정화 정책을 시행하고, 기업의 안정적 수주와 시장 확장을 지원하도록 지시

■ 일본 중앙은행, 우에다 신임 총재 취임. 완화적 통화정책 중단 여부에 관심

- 4/9일 경제학자 가즈오 우에다는 임기 5년의 일본은행 총재로 취임. 얼마 전 있었던 청문회에서는 당분간 기존의 완화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 피력. 다만 최근 일본 기업들의 단기 회사채 매도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시장에서 일본은행의 초완화 통화정책 중단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는 의미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4/10 현지시각 기준)

- 미국 뉴욕 연은 윌리엄스 총재 강연, 미국 2월 도매재고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연준의 통화정책, 노동시장 냉각 징후를 고려할 필요 - 블룸버그

(Labor Market Is Cooling Plenty Under the Surface)

- 3월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일자리가 23.6만개 증가. 이러한 결과만을 반영한다면 노동시장은 다소 과열된 상황으로 판단 가능. 그러나 증가한 일자리는 레저, 숙박, 헬스케어 등 특정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늘어난 반면, 여타 부문의 경우 일자리 증가가 매우 저조하다는 사실은 주목할 사안
- 또한 시간당 임금상승률(3.2%)은 이미 인플레이션 목표치와 비슷한 수준(2%의 인플레이션 목표와 1.5%의 생산성 증가를 감안해 3.5% 이하는 수용할 수 있다는 전제). 시장에서는 5월 FOMC에서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연준은 정책 결정 시 노동시장 냉각 징후도 고려하는 자세가 요구

■ 신흥국 통화시장, 미국 성장둔화 가능성 등으로 캐리트레이드 관심 증가 - 블룸버그

(Popular Emerging Market FX Trade Back With Global Rates Peaking)

- 최근 은행위기 등으로 주요국의 통화긴축 정점 도달 가능성이 부각. 이에 주요국 통화를 차입하여 신흥국에 투자하는 캐리트레이드에 대한 관심이 증가. 향후 미국의 경제성장 둔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신흥국이 선진국보다 선제적으로 금리인상을 시작하여 금리가 이미 큰 폭으로 상승한 점도 이를 뒷받침
- 은행권 우려 등으로 확대되었던 통화시장의 변동성도 점차 안정화되는 상황. 이에 더해 신흥국 경제의 금년(4.0%) 및 내년(4.2%) 성장지속 전망(IMF) 또한 신흥국 통화 가치 상승에 긍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

■ 중국의 아시아 투자, 오히려 반중 감정을 심화 - The Economist

(China's huge Asian investments fail to buy it soft power)

- 지난 10년간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약 150개국으로 확대되었으며 최근 중국은 인도네시아 고속철도 완공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투자 성과를 과시
- 그러나 실제로 금번 프로젝트는 수억 달러의 예산을 초과하고 기간도 4년이나 지연. 그 외에도 스리랑카 항구 프로젝트는 스리랑카 정부를 재정난에 빠트렸고 결국 중국이 다시 항구를 99년간 임대하여 현지인들의 분노를 초래
- 일대일로 전략의 부작용 등으로 동남아시아 전역에는 중국이 경제력을 남용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팽배

■ **주요국 증시, 은행위기에도 불구하고 위태로운 상승세 - The Economist**

(Stocks have shrugged off the banking turmoil. Haven't they?)

- 일반적으로 은행위기는 '08년처럼 주가 폭락을 동반하는데 이는 은행시스템 혼란에 따라 대출이 줄어들어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 그러나 최근에는 SVB 사태 등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럽의 주가 상승이 지속
- 일각에서는 이를 주요국 경제가 양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지만 이는 무리한 분석. 실제 시장에서는 향후 경기침체와 이에 따른 금리 하락을 예상. 파생시장에서도 금리인하 시 수익을 내는 상품가격이 강한 모습
- 또한 기술주 중심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금리하락의 영향인 것으로 판단. 이 외에 경제가 호조일 때 활발한 모습을 보이는 개인투자자 유입세가 저조한 점도 시장불안이 여전함을 반영. 불안이 가시화될 경우 예상치 못한 주가 폭락이 가능함에 유의

■ **미국 은행대출의 큰 폭 감소, 신용여건 악화 지속 신호일 소지 - 블룸버그**

(US Bank Lending Slumps by Most on Record in Final Weeks of March)

■ **고수익채권 가격, 기업 건전성 개선 등으로 상승 예상 - WSJ**

(Four Reasons Why Junk Bonds Might Be Worth Buying)

■ **중국 은행대출, 당국의 지급준비율 인하 등으로 증가 전망 - Financial Times**

(Has Chinese bank lending recovered?)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